

주 앞에 겸손함

신학박사 조 덕운

[야고보서 4:10]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요즈음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장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인정받는다고 하며, 만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력등을 드러내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나 사회 생활에서 도외시 당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이런 세상 사는 교훈을 많이 교육하는 분들을 봅니다. 사실 나도 살아오면서 자신의 교육, 능력, 장점, 자산 등을 많이 드러내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불편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집사나 장로로서의 경력등을 앞세워야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풍조가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아직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훈, 즉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가르치심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인의 성화를 위하여는 먼저 교인이 주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직자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배워서 교인들 앞에서 군림하지 말고 겸손한 예수님의 종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4-6]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느니라. 6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경우에 교직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는 바리새인들의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시었습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 주님의 명령과 원칙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그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 자신들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내세울만한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최고 학문의 도장인 대학의 교수들은 하나님의 원칙들을 무시하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고자 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풀어 주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반항하였지만 결과는 바로 자신과 에집트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오늘날도 미국의 좌파 정권을 비롯하여 서구 여러 나라의 정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경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들과,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헌법의 정신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니, 에집트의 바로가 경험한 결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잠언의 경구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면, 세계 역사를 통한 권력자들의 부침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잠언 16:18-19]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19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략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그분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높히시리라고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 시대에 이어서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결국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왕중의 왕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분들이 될 예언으로 현실화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10-12]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11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만 특별히 말과 글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데에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언행으로써 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인 것입니다.

생활로써 뒷받침 되지 못한 솔로몬의 부패한 신앙보다 창조주께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세상의 한 작은 코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한 포기의 들꽃을 훨씬 더 귀하게 평가하신 주 예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직 주님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나의 작은 생에서도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 작은 생명 보존하시고 하루더 저의 인생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매사에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저의 하는 모든 일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소서.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에 감사합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